

격률의 의도적 위반이 유발하는 함축의 귀추법적 추론*

최재웅
(고려대학교)

Choe, Jae-Woong. 2009, Abduction as an Inference for Implicatures due to Flouting of Maxims. *Linguistic Research* 26(3), 111-127. This paper shows how abduction can be used to explain some typical cases of implicature arising due to flouting of maxims. Following Davis (1998, 2005), some critical issues are first raised and discussed with the prevailing theory of implicature proposed by Grice (1975) and his followers. It is suggested that some generalized patterns for the inferential processes involving implicature need to be augmented, especially with respect to the way some relevant background information is introduced and made use of. Then, after introducing abduction with a representative case of its application to language interpretation (Hobbs, et al. 1993), this paper shows how abduction can provide a more precise and generalized mechanism for the inferential processes, and how some typical cases of implicature arising from maxim floutings can be explained in the mechanism. (Korea University)

Key Words inference, abduction, implicature, maxim, flouting

1. 서론

함축(implicature)은 화자가 자신의 의도를 발화에 명시적으로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청자에게 성공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주요 개념이다. 아래 대화에서 경찰의 대답은 ‘난 네 말을 믿을 수가 없어’라는 내용을 함축한다 (이성범 2001: 219).

(1) [파출소에 자수하러 온 간첩 철진과 경찰 사이에서]

철진: 저 간첩인데요. 간첩이라고요.

경찰: 그래, 난 김정일이야.

이러한 함축이 화-청자간에 어떻게 성공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가하는 점은 일견 당연해 보이면서도 그 구체적인 과정에 대한 설명은 아직 불명확한 부분들이 없지 않다. 특히 어떤 형태든 추론이 개입한다는 점은 알려져 있지만, 그러한 추론의 정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라

* 감사의 글: 본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의 평에 따라 일부 내용을 다듬을 수 있었다. 전지은 선생은 표기의 일관성이나 표현상의 오류 등을 꼼꼼하게 지적해 주었다. 두 분께 감사를 표한다. 본 논문은 고려대학교 연구년 연구비 지원을 받아 이루어졌다.

는 의문은 더 논의될 여지가 적지 않다 (Davis 1998, 2005). 이성범(2001)은 함축에 대한 기존 이론을 정리하면서, 위와 같은 자연언어에서의 추론은 연역추론이나 귀납추론과 같은 “논리적 추론”과는 구별되는 “자연언어의 추론”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자연언어의 추론”이 어떤 절차를 거쳐 도출되는지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그러한 자연언어의 추론이 일반화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일반화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명시적인 논의가 필요한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귀추추론(abduction)을¹⁾ 이용하여 함축의미가 도출되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일반화할 수 있다는 점을 보이면서 함축에 귀추추론이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한다. Peirce (1931)가 최초로 제안한 귀추추론은 ‘최선의 설명으로의 추론(inference to the best explanation)’으로 알려져 있는 바, 연역추론이나 귀납추론과는 달리 복잡한 자연 현상을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주요 논리로 간주되고 있다.²⁾

- (2) 귀추(歸推) 논리(abduction)는 복잡한 경험 세계를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하는 개념을 설정하고, 그 개념을 통해 경험 세계를 새롭게 이해하게 하는 사유 방식이다. 종교, 예술, 문학, 철학에서 우리의 세계를 설명하고, 이해하고, 표현하고, 체험하게 하는 사유 방식으로 적용되어 온 비연역적 논리이다. [...] 귀추 논리가 귀납 논리와 다른 점은, 귀납 논리가 개별적 현상들 뒤에 있는 일반적 질서를 찾는 데 필요한 논리인 데에 비해, 귀추 논리는 경험 세계로부터 포괄적 개념화의 차원으로 갔다가 다시 경험 세계로 돌아와 그 포괄적 개념을 적용해 보는 회귀적 사유의 논리라는 점이 다르다. (소홍렬 1979: 382)

“경험 세계를 새롭게 이해하게 하”는데 귀추추론이 기여한다면, 이것이 함축에 적용될 개연성이 크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어떤 발화를 들은 청자가 그 발화의 표면적인 의미가 잘 수용이 되지 않을 때, 그 발화의 의미를 “새롭게 이해하”는데 함축의 기제가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상대방의 발화를 표면에 주어진 대로가 아니라 새롭게 이해하는데 함축의 기제가 작동하는 것이라면, 이는 위에서 언급한 귀추추론이 기여하는 바와 일치한다. 본 논문에서는 함축현상 중에서도 ‘새로움’이 특히 부각되는 ‘의도적 격률위배’의 사례 및 유형을 중심으로, 귀추추론이 함축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모색해 본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절에서는 Davis (1998, 2005)의 논거를 중심으로 기존 함축이론에서의 계산가능성, 즉 추론절차가 왜 문제가 되는지, 그러한 논의의 한계가 무엇인

1) 영어표현 abduction은 한국어로 “귀추논법(소홍렬 1979, 양승언&최재웅 1999),” “상정논법(이초식 1993),” “불명추론(김영택 외 1994),” “가추법(김성도 1998, 박우석 2002),” “추측법(이성범 2001)” 등으로 번역되어 쓰이고 있다. 이 중 ‘귀추’가 가장 먼저 쓰이기 시작했고, 최근의 Google검색에서도 다른 “가추법”이나 “상정논법”에 비해서도 약 10배 정도 많이 검색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 논문에서는 ‘귀추(논)법,’ ‘귀추추론’ 등의 용어를 선택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2) 이성범(2001)에는 Peirce의 “추측법(abduction)”이 구한말 최한기의 [추측록]에 개진된 입장과 유사하다는 점과 철학계 및 과학계에서 제 3의 논리적 방법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점이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다.

지를 살펴본다. 3절에서는 귀추추론에 대한 도입과 더불어 언어현상에 귀추추론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일별해 본다. 이어 3절에서는 의도적 격률 위배의 대표적인 예를 중심으로 귀추추론이 함축의미의 도출에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보인다. 4절은 결론이다.

2. 함축의 계산가능성

Grice (1975)의 관점 및 분석에 대한 Davis (1998, 2005)의 반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Grice의 함축이론이 관련 현상을 제대로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관련 현상을 설명하기에 너무 강력한 장치라는 점이다. 이 두 가지의 문제점을 순서대로 검토하기에 앞서 우선 Grice의 이론에 대한 최소한의 소개가 필요할 것이다.³⁾

잘 알려져 있다시피, Grice는 청자가 발화에 ‘숨겨진 의미’를 넣어 청자에게 성공적으로 전달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데는 협동의 원리와 격률이 핵심적인 장치가 된다는 점을 보였다.

(3) Cooperative Principle: Contribute what is required by the accepted purpose of the conversation.

(4) Maxims

Maxim of Quality: Make your contribution true; so do not convey what you believe false or unjustified.

Maxim of Quantity: Be as informative as required.

Maxim of Relation: Be relevant.

Maxim of Manner: Be perspicuous; so avoid obscurity and ambiguity, and strive for brevity and order.

‘숨겨진 의미’ 중 가장 현저하면서도 언어학적 논의의 주 관심 대상이 된 것이 함축(implicature)로, 그러한 함축의 발생을 설명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이론적 토대가 제공된다.⁴⁾

(5) S conversationally implicates p iff S implicates p when:

(i) S is presumed to be observing the Cooperative Principle (cooperative presumption);

(ii) The supposition that S believes p is required to make S's utterance

3) 이 절의 내용은 Davis에 따라 Grice 함축이론을 검토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예 및 관련 논의는 Davis (1998: 1~3장) 및 Davis (2005)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 보다 상세한 논의는 해당 자료를 참고하기 바람.

4) 여기에서는 Grice (1975: 30-31)가 제시한 정의를 직접 인용하지 않고, 이를 약간 간결하게 정리한 Davis (1998: 13, 2005)에서 인용하기로 한다. 이는 이어지는 논의와의 연계성도 고려한 것이다.

- consistent with the Cooperative Principle (determinacy); and
 (iii) S believes (or knows), and expects H to believe that S believes,
 that H is able to determine that (ii) is true (mutual knowledge).⁵⁾

이와 같은 Grice이론에 대하여 Davis (1998: 3장, 2005)가 제기하는 한 가지 문제점은 실제 함축 현상을 볼 때 (5)에 제시된 Grice의 함축 발생 기제로는 설명이 불충분하다는 점이다. 특히 함축 이론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5ii)의 ‘결정 조건 (Determinacy Condition)’이 충족되기 어렵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대화함축이 협동의 원리로부터 도출이 된다는 것은 아래의 계산 가능성을 바탕으로 한다. 즉, (5)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함축의 또 하나의 중요한 측면은 그것이 계산 가능하다는 점이다. Davis는 이것을 “계산 가설 (Calculability Assumption)”이라 부른다.

- (6) Calculability Assumption: Conversational implicatures must be capable of being worked out.

Grice의 설명을 빌리면 함축의 계산 가능성은 아래와 같이 설명된다.

- (7) A general pattern for the working out of a conversational implicature might be given as follows: "He has said that q; there is no reason to suppose that he is not observing the maxims, or at least the Cooperative Principle; he could not be doing this unless he thought that p; he knows (and knows that I know that he knows) that I can see that the supposition that he thinks that p is required; he has done nothing to stop me think that p; he intends me to think, or is at least willing to allow me to think, that p; and so he has implicated that p."⁶⁾ (Grice 1975: 31)

이러한 계산 가설, 즉 함축의 계산 가능성이 과연 충족될 수 있는가? 이 점에 대해 Davis는 부정적이다. 협동이론 및 함축이론이 제시하는 틀만으로는 소위 함축현상을 설명하기에 역

5) 협동의 원리가 준수되고 위의 정의에 포함된 ‘결정성’이나 ‘상호지식’의 조건이 충족되면, 함축 p의 도출에 대한 충분조건이 된다고 볼 수 있다. Davis (1998: 28)는 이를 "Sufficiency Implication"이라 칭한다.

6) Davis (1998: 15)가 이 내용을 추론 절차로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기에 아래에 인용한다.

P1 S uttered a sentence with a particular meaning, in a given context, etc.

P2 S is observing the Cooperative Principle.

P3 Given P1, S could not be observing the Cooperative Principle unless he believed p.

...

C Therefore, S implicated p.

부족이라는 것이다.

(8) Grice's determinacy condition states that **S** conversationally implicates **p** only if **S** has to believe **p** if **S**'s utterance is to be consistent with the Cooperative Principle. Determinacy is a key premise in the working out schema. It is hard to find contexts, though, in which the determinacy condition is satisfied. There are normally many alternative ways for a speaker to be cooperative, and contribute what is required by the purpose of the conversation. (Davis 2005, 5절)

전형적인 함축 생성이라 간주되는 다음 대화를 보자.

(9) Ann: *Where can I get gasoline?*

Bob: *There's a station around the corner.*

(9)에서 Bob이 한 말은, '모퉁이를 돌면 휘발유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5)의 결정 조건 및 (7)의 계산 가능성에 따르면 그러한 함축은 "요구되는" 것으로서, 의당 그리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9)의 대화에서 Bob의 대답은 당연히 해당 명제를 함축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그러나 동일한 상화에서의 동일한 대화라 하더라도 Ann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Bob의 말이 다른 함축을 가질 수 있다. Davis는 위의 예에서 Bob이 자신의 대답을 하나의 irony나 parody로 사용하였을 수도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경제공황시대에 도처에 널려있던 말인 *Prosperity is just around the corner*에 빗대어 냉소적인 태도로 Ann에게 근처에서 휘발유 구하는 것이 헛된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Ann도 마침 그러한 연유를 알고 있다면 Bob의 비유는 성공적으로 Ann에게 전달이 되고, Ann은 '근처에서 휘발유를 구할 수 없다'는 Bob의 함축을 알아들을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9)에서 Bob이 함축하는 것이 의당 그러한 것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예로 제시된 두 가지 함축 중 어느 쪽도 당연히 요구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Grice 및 후속연구자들이 제시한 함축 기제만으로는 '결정 조건(Determinacy Condition)'을 충족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⁷⁾

Davis (1998, 2005: 2장)는 함축이론에 대한 또 다른 문제점으로 Grice이론이 관련 현상

7) Davis (1998: 66-70)는 '결정 조건(Determinacy Condition)'을 약간 약화시켜 문제를 해결하려는 기존의 시도들을 검토하면서 그러한 대안들도 결국 비슷한 문제에 봉착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래는 (5ii)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The supposition that S believes p is probable given that S is observing the Cooperative Principle." (Davis 1998: 67)

을 너무 자의적으로 설명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 (10) Many have argued that Gricean theory “overgenerates” implicatures. For nearly every implicature that appears to be correctly predicted by Gricean theory, others appear to be falsely predicted. The schema used to “work out” observed implicatures can usually be used just as well to work out nonexistent implicatures. So the schema as formulated is not a reliable method of inferring implicatures. (Davis 2005, 4절)

다음 예를 보자.

- (11) a. *Some athletes smoke*
 b. Not all athletes smoke.
 c. All athletes smoke.

흔히 (11a)가 (11b)를 함축한다는 점은 양의 격률이 작용하는 대표적인 예로 제시된다. 만일 모든 운동선수가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면 화자는 마땅히 (11c)처럼 말을 했을 텐데, 그 보다 약한 표현인 (11a)를 사용한 한 것을 보면 (11c)를 부정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도를 읽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11c)가 사실이라는 것을 알면서 (11a)처럼 말했다면 이는 곧 ‘필요한 만큼 정보를 제공하라’는 양의 격률을 위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Davis는 (11a)보다 강한 명제로 치자면 (11c)는 오히려 특수한 경우고, 그 밖에도 무수히 많다고 지적한다. 달리 말 해, 같은 논리에 따라 (11a)는 (11b)뿐만 아니라 ‘Less than 1% of athletes smoke,’ ‘No athletes smoke constantly,’ ‘No athletes smoke filterless Marlboros,’ 등 수많은 의미를 함축한다고 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Grice의 논리로 (11a)가 실제로 함축하는 (11b)뿐만 아니라 그 밖의 많은 함축을 가지고 있다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아래 문장도 마찬가지다 (함축 관계 성립의 유·무를 각각 기호 $\models$ · $\nmodels$ 를 써서 표기하기로 한다.).

- (12) a. *John cut someone* $\models$ John did not cut himself.
 b. *John broke an arm* $\nmodels$ John did not break his own arm.

(12a)의 함축관계가 성립한다면 (Leech 1983: 91), 같은 구문인 (12b)의 함축도출을 막을 수가 없으나, 이것 역시 과잉생성된 함축이 된다.⁸⁾ Davis에 따르면 항진명제(tautology)

8) 실제 *John broke an arm*은 (12b)와는 달리 오히려 ‘John broke his own arm’의 함축을 띠게 된다.

가 이야기하는 함축의 경우에도 과잉생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 (13) a. *War is war.* ⊢ Terrible things always happen in war, that's its nature and it's no good lamenting that particular disaster.
 b. *Either John will come or he won't.* ⊢ Calm down, there's no point in worrying about whether he's going to come because there's nothing we can do about it.

(13a)와 (13b)의 주어진 표현 *War is war*와 *Either John will come or he won't*는 어느 경우에서든 참이 되는 문장으로 그 둘의 진리조건적 의미는 동일하다. 그런 동일한 의미를 지닌 두 문장이 (13)에서 보이듯 어떻게 전혀 다른 함축을 띠는가 하는 점은 설명되어야 할 문제점이다.⁹⁾ 즉 (13a)와 (13b)가 각각 서로 엇갈린 함축을 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없다는 점에서 여기에서도 함축의 과잉생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Grice 및 후속 연구자들에 의해 제시된 함축 이론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함축이 협동의 원리에 따라 당연히 일어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으나, Davis 및 관련 연구자들에 따르면 이는 실제 자료를 설명하기에 한편으로 부족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자의적이라는 것이다.

- (14) 발화 ⊢ 함축
 (협동의 원리, 격률)

즉 (14)의 도식에서 주어진 발화가 협동의 원리에 따라 특정 함축을 의당 띠어야 한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는 아직 제대로 통제된 장치로 보기 어렵다.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은 이론 이기에 도출하지 말아야 할 함축을 도출하거나 (과잉생성), 또는 도출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함축을 도출하지 못하는 (생성부족)의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한 가지 해결 방안은 도출 과정을 좀 더 통제하여 현상에 보다 근접하는 이론으로 다듬어 가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불충분한 도식 (14)에 상호지식과 맥락에서 무엇을 어떻게 개입시켜서 함축이 적절히 도출되도록 해 줄 수 있는가가 쟁점이 된다. 본 논문에서는 (5iii)에서 언급된 '상호지식'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어 이를 도출 과정에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거기에 더해 그러한 활용을 기준에 확립된 논리체계에 의지하도록 하면, 설명이 지나치게 자의적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고 본다.

9) (13a)와 (13b)의 함축은 Levinson (1983: 110)에 따른 해석이다. 한 가지 주목할 사실은 Levinson 자신도 (13a)와 (13b)에서의 함축이 Grice 이론의 틀 속에서 어떻게 설명이 될 수 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보고 있다.

"Incidentally, exactly how the appropriate implicatures in these cases are to be predicted remains quite unclear, although the maxim of relevance would presumably play a crucial role." Levinson (1983: 111)

3. 귀추추론과 언어

귀추추론의 특성은 ‘설명적 가설(an explanatory hypothesis)’이란 말로 압축할 수 있다. Peirce (1931:Vol.II, 374-5)는 ‘하얀 콩’의 예를 통해 귀추법을 주요 논리 추론과 비교하였다. ‘규칙’, ‘사례’, ‘결과’를 바탕으로 연역법(deduction), 귀납법(induction), 귀추법 사이의 관계를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15) Rule: All the beans from this bag are white.

Case: These beans are from this bag.

Result: These beans are white.

(16) Case: These beans are from this bag.

Result: These beans are white.

Rule: All the beans from this bag are white.

(17) Rule: All the beans from this bag are white.

Result: These beans are white.

Case: These beans are from this bag.

(15)의 연역법은 ‘규칙’과 ‘사례’를 전제로 하여 ‘결과’를 도출하는 추론이고, (16)의 귀납법의 경우에는 ‘사례’와 ‘결과’를 전제로 해서 ‘규칙’을 도출하는 추론이다. 이에 반해서 (17)의 귀추법은 ‘결과’와 ‘규칙’을 전제로 하여 ‘사례’를 도출해 내는 추론 방식이 된다 (Neal 2000: 381-82). 즉, ‘결과’가 눈앞에 드러난 사실이라면, 또 하나의 전제로 주어진 ‘규칙’ 정보를 바탕으로, ‘사례’가 무엇인지를 도출해 내는 추론이다. 이러한 귀추추론의 구체적인 단계를 Peirce는 아래와 같이 일반화하고 있다.¹⁰⁾

(18) [Pr1]: The surprising fact, C, is observed;

[Pr2]: But if A were true, C would be a matter of course,

[Cn]: Hence, there is reason to suspect that A is true.

(Peirce 1931:Vol. V, 189, <http://www.textlog.de/7664-2.html>,

[Pr1,2], [Cn]은 아래에서의 설명의 편의상 추가된 것임)

(18)에서 [Pr2]는 ‘규칙’이고, [Pr1]은 ‘결과’에, 그리고 [Cn]은 ‘사례’에 해당된다.¹¹⁾ 어떤

10) 귀추법은 주어진 전제만으로 결론이 반드시 도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예증적 추론 (non-demonstrative inference)로 간주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예증적 추론인 연역법보다는 귀납법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이성범 (2000: 83) 참조.

11) (18)에 제시된 추론에서 처음 두 줄은 (17)에서의 ‘규칙’과 ‘결과’로 된 처음 두 줄과 서로 뒤바뀌어 있다. 그러나

결과를 보고, 그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일반적인 규칙을 추가하여,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되는 정보를 이끌어 내는 추론 형태가 (18)에 제시되어 있다. 즉, 어떤 주어진 현상에 대한 최상의 설명을 찾아내는 추론이다. 이때 ‘결과’는 [Pr1]에 명시된 바처럼, ‘놀라운 사실’이다. ‘놀라움’이란 말에는 ‘의외성’이 내포되어 있다. 다음 절에서 다룰 격률에 대한 의도적 위배 역시 ‘의외성’이 가장 특징적으로 드러나는 발화로, (18) [Pr1]의 ‘놀라움’이라는 조건에 딱 들어맞는다.

귀추추론을 언어분석에 적극 활용한 대표적인 예로는 Hobbs et al. (1993)가 있고, 이를 확대한 추후 연구로 Bunt & Black (2000), Blutner (2004) 등이 있다. 여기에서는 Hobbs et al. (1993)에 나온 예를 들어 언어분석에 귀추법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간단히 확인해 본다. Hobbs et al. (1993)은 (17), (18)에 제시된 귀추추론을 아래와 같이 표시한다.

$$\begin{array}{l}
 (19) \quad (x) F(x) \supset G(x) \\
 \quad \quad G(a) \\
 \hline
 \quad \quad F(a)
 \end{array}$$

이러한 형식화를 바탕으로 아래 표현을 예시적으로 설명한다.

(20) *The Boston office called*

Hobbs et al. (1993)은 문장 (20)에서 세 가지 화용적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 (21) a. *the Boston office*의 지시관계를 해결하는 일
- b. *the Boston office*가 드러내는 환유관계를 [*some person at the Boston office (called)*]로 확장하는 일
- c. *Boston*과 *the office*사이의 관계를 결정하는 일

따라서 (21)에 제시된 문제들을 포함하여 (20)을 제대로 해석하려면, 적어도 다음과 같은 논리구조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begin{array}{l}
 (22) \quad (\exists x,y,z,e) \text{ call}(e,x) \wedge \text{person}(x) \wedge \text{rel}(x,y) \wedge \text{office}(y) \wedge \text{Boston}(z) \\
 \quad \quad \wedge \text{nn}(z,y)
 \end{array}$$

즉, 어떤 사건 *e*가 있는 바, 그 사건은 ‘전화를 거는’ 사건으로, 사건의 주체는 *person*이

그 둘 다 추론에서 주어진 것, 즉 전제가 되므로 그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

면서 office와 특정 관계($\text{rel}(x,y)$)에 있고 Boston과 office 사이에는 명사-명사가 드러내는 특정 관계($\text{nn}(z,y)$)가 있다는 내용이 (22)에 담겨있다. 여기에서 rel 과 nn 은 둘 다 명시되지 않은 관계로 여기에 배경정보의 보충이 필요하며, 그러한 보충의 절차가 바로 귀추추론이다. 그러한 절차에 활용되는 배경정보는 각각 아래와 같다.¹²⁾

- (23) a. $\forall (x,y) \text{work-for}(x,y) \supset \text{rel}(x,y)$
 b. $\forall (y,z) \text{in}(y,z) \supset \text{nn}(z,y)$

(23a)는 x 가 y 를 위해 일을 한다면 그 둘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다는 규칙이고, (23b)는 y 가 z 안에 있다면 z 와 y 는 하나의 복합명사를 구성하는 요소사이의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규칙이다. 이제는 이러한 배경정보가 귀추법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살펴보자. (22)의 $\text{rel}(x,y)$ 와 (23a)를 전제로 할 경우 (19)의 귀추법 추론에 따라 $\text{work-for}(x,y)$ 가 도출되고, (22)의 $\text{nn}(z,y)$ 와 (23b)를 전제로 할 경우에는 역시 (19)에 따라, $\text{in}(y,z)$ 가 도출된다. 이처럼 배경지식이 귀추법을 통해 문장 논리식에 적용이 되면 결과적으로 (22)로부터 아래 논리식 (24)가 도출되고, 이것이 본래 문장 (20)의 의미가 된다는 것이 Hobbs et al. (1993)의 주장이다. 아래 논리식에서 변항 대신 도입된 J1, O1, B1 등은 역시 담화상황 및 배경지식으로부터 보충된 구체적인 개체를 가리킨다.

- (24) $\text{Boston}(B1). \text{office}(O1) \wedge \text{in}(O1,B1). \text{person}(J1). \text{work-for}(J1,O1).$

지금까지 화용적 문제가 귀추법을 활용하여 어떻게 풀릴 수 있는지를 Hobbs et al. (1993)의 구체적인 제안을 통해 간단히 살펴보았다. 여기에서 보인 것이 어휘나 구의 화용적 특성이 귀추법으로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인 반면, 본 논문에서 초점을 맞추는 부분은 함축의 문제 중 의도적 격률위배의 문제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로, 특히 대화상황에서 발생하는 격률위배의 예가 되겠다.

4. 의도적 격률위배

본 절에서는 관계의 격률, 질의 격률, 그리고 양의 격률을 의도적으로 위배하는 대표적인 예들을 소재로 하여 그러한 의도적 위배가 야기하는 함축의 설명에 귀추추론이 어떻게 보완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를 보인다.

회사 건물 내 자판기 앞에서 사원 두 사람이 아래와 같은 대화를 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

12) ‘배경지식’을 Hobbs et al. (1993)은 ‘지식기반(Knowledge Base)’라 칭하고 있다. 이는 또한 2절에서 나온 ‘상호지식(Mutual Knowledge)’와도 다르지 않다. 여기에서는 ‘배경지식’을 담화상황에 대한 지식까지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자.

(25) A: 김과장은 오늘 왜 그 난리야?

B: 오늘 날씨 참 좋지?

A의 발화에 대한 B의 대꾸는 명백한 동문서답이 되고 있다. 그렇다고 B의 대화가 정말 동문서답인가 하면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데 이러한 대화의 묘미가 있다. B의 대꾸는 예를 들어 ‘화제를 돌려’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묘미를 체계적으로 설명해 주는데 기여하는 것이 Grice의 대화협동의 원리 및 격률이다.

(25)의 대화에서 A의 발화는 질문으로, 질문-대답이란 인접조건에 따르면 B는 질문에 대답을 하거나 최소한 관련이 있는 말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데 B는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다. 대화가 순조롭게 흐르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A에게는 자신의 발화에 대한 B의 대꾸가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전혀 기대하지 않은 발화로 들릴 것이다. 이처럼 표면적으로는 동문서답의 상황인데도 위의 대화가 적절한 대화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2절에서 소개된 함축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함축이론에 따르면 B의 대꾸는 표면적으로는 관계의 격률(maxim of relation)을 위배하고 있다. 대화에 관계의 격률이 작동하고 있다고 전제할 때, B의 엉뚱한 대꾸에 대하여 화자 A는 B의 발화가 그 엉뚱함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관련이 있는 말을 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관련이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일까하고 찾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25)에서 B의 응답은 귀추추론에서 말한 ‘의외성’이나 ‘놀라움’을 야기하는 발화로 간주되고, 그러한 의외성은 관계의 격률을 어긴다는 점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관계의 격률을 어기고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의외성으로 이어지고, 따라서 숨겨진 의미가 무엇인지 찾으려 하는 유발자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숨겨진 의미를 찾으려 하는 유발을 하지만, 그렇다고 그 정도로 숨겨진 의미가 그냥 명백히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이 점이 2절에서 논의된 함축이론의 문제점이었다. 함축이론에서는 다음과 같이 함축이 “요구되는 것 (5)”이라고 하는 하면서도 어떻게 도출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에 대하여 필요한 만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한다.

(26) 오늘 날씨 참 좋지? ─ 급히 화제를 돌려야할 난처한 상황이야.

그러면 숨겨진 의미를 어떻게 찾는가? 어떤 절차를 거쳐 찾는가? 다음과 같은 귀추 추론적 절차를 상정해 볼 수 있다.

(27) [Pr1]: 오늘 날씨가 참 좋지?

[Pr2]: 급히 화제를 돌려야할 난처한 상황이면 관련 없는 말을 한다.

[Cn]: 급히 화제를 돌려야 할 난처한 상황이다.

우선 첫 번째 전제 [Pr1]이 앞선 발화와 관련이 없는 발화라는 점은, 앞에서 말했듯, 관계의 격률을 위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화자가 명백히 드러내고 있고 이것을 상대방이 충분히 파악한다는 점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문제는 두 번째 전제인 ‘규칙’ [Pr2]다. 이러한 규칙은, 3절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화청자의 배경지식으로부터 제공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앞에서 설명한대로, 주어진 현상에 대한 ‘최선의 설명’을 위해서 가장 적합한 규칙을 배경지식에서 선택하여 추론의 전제로 도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에는 명백한 거짓을 말함으로써 질의 격률(maxim of quality)에 대한 의도적 위배의 경우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에 대한 예는 (1)에서 이미 제시된 바 있다.

(1) [파출소에 자수하러 온 간첩 철진과 경찰 사이에서]

철진: 저 간첩인데요. 간첩이라구요.

경찰: 그래, 난 김정일이야.

(1)에서 경찰의 대꾸는 ‘네 말을 믿을 수가 없어’라는 명제를 함축하고 있다. 경찰의 대꾸와 그것이 함축하는 바를 적절히 연결짓기 위해서는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배경지식으로부터 적절한 규칙을 찾아 전제로 추가해 준 후 이를 귀추법적 추론의 도출과정을 거친다. 이번에 활용되는 지식은 아래의 [Pr2]다.

(28) [Pr1]: 난 김정일이야.

[Pr2]: 믿을 수 없는 말에는 믿을 수 없는 말을 한다.

[Cn]: 믿을 수 없는 말이다.

물론 (1)에서 경찰이 한 말만이 거짓말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대화에서 경찰의 대꾸 역시 거짓말이다.

(1') [파출소에 자수하러 온 간첩 철진과 경찰 사이에서]

철진: 저 간첩인데요. 간첩이라구요.

경찰: 그래, 나도 간첩이야.

질의 격률을 위배하고 있다는 것이 화청자사이에 분명하기만 하다면, 경찰 대답의 여러 변이형을 생각해 보더라도 함축하는 바는 달라지지 않는다.¹³⁾ 어느 경우든 경찰이 함축하는

13) 질의 격률뿐만 아니라 관계의 격률이나 다른 격률까지 의도적으로 위배하는 경우라면 사정이 더 복잡해 질 것이다.

바는 상대방의 말을 믿지 않는다는 점이 될 것이고, 이는 추론 (28)을 통해 도출이 가능하다. 이러한 추론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배경지식에서 도입하는 [Pr2]로, 그러한 명제의 개연성이 전체 추론의 개연성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우선은 그러한 ‘규칙’의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¹⁴⁾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위의 예에서 경찰의 대답이 함축하는 바를 직관적으로 설명할 때도 활용할만한 가장 그럴듯한 정보인가라는 점에서도 평가를 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명백한 거짓말이라 해서 항상 [Pr2]와 같은 정보가 동원되는 것은 아니다. 개별 상황별로 필요한 추가 정보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관여시킬 수 있는가를 판단해야 한다. 이런 점이 배경지식에서 관련 명제를 선택할 때 고려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음 예를 보자.

(29) [바둑을 두고 있는, 실제로는 이창호가 아닌 사람을 보고]

A: 저 사람 바둑 잘 두네.

B: 재는 이창호야!

일단 (29)의 B가 의도적으로 질의 격률을 위배하고 있다는 것을 화청자 모두가 받아들인다고 가정하자. 그렇다면 그 말이 (1)이나 (1')에서처럼 ‘네 말을 믿을 수가 없어’라는 함축을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까? 적어도 (28)의 추론을 따른다면 그렇게 된다. 그러나 (29) B의 발화는 전혀 다른 함축을 띤다. 오히려 반대로 상대방의 발화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즉 ‘정말 바둑을 뛰어나게 잘 댜’라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1)에서 경찰의 대꾸나, (29) B의 말이나 둘 다 명백한 거짓으로 관계의 격률을 의도적으로 어기고 있으나, 그것이 함축하는 바는 정반대다. 귀추추론의 관점에서 그러한 차이를 설명하는 한 가지 방법은 물론 전체에 활용되는 ‘규칙’ 정보를 달리 선택하는 방법이다. 즉 그 규칙으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다. (29)는 아래와 같은 추론을 거치는 것으로 본다.¹⁵⁾

(30) [Pr1]: 쟤 이창호야.

[Pr2]: 바둑을 뛰어나게 잘 두는 사람은 이창호다.

[Cn]: 저 사람은 바둑을 뛰어나게 잘 둔다.

즉 개별 상황별로 그 상황에 가장 적합한 관련 명제를 선택하는 것이 함축 도출에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된다.¹⁶⁾ ‘최선의 설명’을 위해서 가장 적합한 명제를 선택한 뒤, 이를 바탕으로 함축을 도출해 내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화청자간 불일치가 생길 수도 있다.

14) [Pr2]는 흔히 회자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 비슷한 유형으로 이해될 수 있다.

15) 추론을 개입시킬 필요도 없이 ‘이창호’라는 고유명사가 이미 보통명사화한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 그럴 경우

(30)의 [Pr2]를 주부와 술부를 바꾸어 놓으면 ‘이창호’의 사전적 정의가 될 것이다.

16) 문화에 따른 차이 역시 고려되어야 할 주요한 요소다 (Davis 1998: 44).

(31) [바둑을 두고 있는, 실제로는 조남철이 아닌 사람을 보고]

A: 저 사람은 완전 조남철이야.

B: 조남철이 누구인데?

(31)에서 A의 발화는 명백한 거짓을 통한 함축을 전달하고자 의도된 것이다. 그러나 B의 응답을 보면, 그러한 의도가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B가 비록 지시 대상이 조남철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즉 명백한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하더라도, A의 발화가 함축하는 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즉 의사소통의 실패가 된다. (30)을 예로 해서 설명하자면 [Pr2]에 활용될 법한 ‘바둑을 뛰어나게 잘 두는 사람은 조남철이다’라는 ‘규칙’이 적어도 화자 (31) B에게는 공유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게 볼 때, (31)의 A발화가 함축하는 것이 제대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화청자 모두 조남철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하고 그것을 추론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조남철이라는 이름을 아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조남철이 바둑을 두는 사람’이라는 정도로도 불충분하다. ‘바둑하면 조남철’이라는 정보와 바둑 실력을 대표할만한 인물이 조남철이라는 점을 알고 있어야 그 함축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바둑을 뛰어나게 잘 두는 사람은 조남철이다’라는 정보가 전제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양의 격률을 위배하는 사례로 여겨지는 경우로 (13a)에 나온 항진명제의 예를 검토해 보자.

(32) *War is war.* ⊢ It is the nature of war that terrible things happen.

항진명제가 양의 격률을 의도적으로 위배하는 것인지는 불분명하지만 (Davis 1998: 41), 일단 이러한 점을 귀추추론 방식으로 도식화가 가능할지 모색해 보기로 한다.¹⁷⁾

(33) [Pr1]: *War is war.*

[Pr2]: If x has most typical properties of being x, x is x.

[Cn]: War has most typical properties of being war.

(33)에서의 귀추추론적 단계는 아직 (32)에 제시된 함축에까지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추론은 전쟁에 대한 배경지식의 도움을 받아 쉽게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34) War has most typical properties of being war. --> War is typically terrible.

17) 주어진 예가 영어이므로 추론도 영어로 제시한다.

(33)과 (34)를 함께 고려해 볼 때, 항진명제 'x is x'의 유형은 전형적으로 x값으로 무엇이 주어지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아래의 예는 이를 뒷받침한다.

(35) 서울은 서울이야.

(35)의 발화는 발화자에 따라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 서울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는 부정적인 함축을 띠는 표현으로, 서울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는 반대로 긍정적인 함축을 띠는 표현으로 간주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한 다양한 함축의 가능성을 모두 수용하려면 (32)와 같은 함축 추론 방식으로는 일반화가 매우 어렵다. 이점이 각주 9에 소개된, Levinson (1983: 110)에서도 지적된 사항이다. 더군다나 실제 상황에서 의도적 발화로 야기되는 함축이 매우 다양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Greenall 2009), (32)처럼 함축을 설명하는 것은 일반화가 거의 불가능하다 할 것이다. 반면 (33)과 같은 귀추추론을 적용할 경우, 그 추론 형식의 일반화는 견지하면서도 전제로 선택되는 '규칙'을 변수로 해서 상황별 달라지는 함축을 설명할 수 있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격률의 의도적 위배를 통한 함축 발생에 대하여 귀추추론을 이용한 일반화를 시도하였다. 함축에 대한 주요 문제점으로 Davis가 제기한 함축의 계산 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검토하면서 결국 추론 과정에서 보충적 지식을 체계적으로 활용해야 할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2절). 이어서 귀추추론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언어현상의 설명에 귀추추론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면서, '규칙'의 도입에 배경지식이 활용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3절). 이와 같은 논의에 바탕을 두어 4절에서는 전형적인 의도적 격률위배를 '관계의 격률', '질의 격률', '양의 격률'의 순서로 다루면서 그러한 위배로 발생하는 함축의 예를 귀추추론을 이용하여 어떻게 일반화하여 설명할 수 있는지를 보였다.

함축의 문제는 그 의미의 다양성만큼이나 형식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특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함축 추론 절차의 일반화 문제에 대한 한 가지 방향을 모색해 본 것에 의미를 둘 수 있다.

참고문헌

- 김성도. 1998. "가추법의 화용론적 함의". 『담화와인지』 5(2), pp.23-40.
- 김영택 · 권혁철 · 옥철영 · 서영훈 · 이상조 · 윤덕호 · 강승식 · 이호석 · 윤성희 · 이하규 · 심광섭.
1994. 『자연 언어 처리』 서울: 교학사.
- 박우석. 2002. 『바둑철학』 서울: 동연출판사.
- 소홍렬. 1979. 『논리와 사고』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양승연 · 최재웅. 1999. "언어 이해 과정과 귀추법". 『인지과학의 현재, 과거, 미래: 인지과학회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pp.363-370.
- 이성범. 2001. 『추론의 화용론』 서울: 한국문화사.
- 이초식. 1993. 『인공지능의 철학』 서울: 고려대 출판부.
- Blutner, Reinhard. 2004. "Pragmatics and the lexicon." In: Laurence R. Horn and Gregory Ward (Eds.) *Handbook of Pragmatics*, Oxford: Blackwell. (<http://www.blutner.de/pragmatics.pdf>)
- Bunt, Harry and William Black (Eds.) 2000. *Abduction, Belief and Context in Dialogue*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 Co.
- Davis, Wayne A. 1998. *Implicature: Intention, Convention, and Principle in the Failure of Gricean Theo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avis, Wayne A. 2005. "Implicature."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http://plato.stanford.edu/entries/implicature/#Bib>)
- Greenall, Annjo Klungervik. 2009. "Towards a new theory of flouting." *Journal of Pragmatics* 41, pp.2295-2311.
- Grice, Paul. 1975. "Logic and conversation." In: Peter Cole and Jerry Morgan (Eds.) *Syntax and Semantics 3: Speech Acts*, New York: Academic Press. Reprinted in H. Paul Grice *Studies in the Way of Words*, pp.22 - 40.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89)
- Hobbs, Jerry, Mark E. Stickel, Douglass E. Appelt, and Paul Martin. 1993. "Interpretation as abduction." *Artificial Intelligence* 63, pp.69-142.
- Leech, Geoffrey. 1983. *The Principle of Pragmatics*. London: Longman.
- Levinson, Stephen C. 1983. *Pragma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Neal, Philip. 2000. "Abduction and induction: a real distinction?" In: Harry Bunt and William Black (Eds.) *Abduction, Belief and Context in Dialogue: Studies in Computational Pragmatics*,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 Co.
- Peirce, Charles Sanders. 1931. *Collected Papers*. Vols. I-VI (1931-1935), Ch. Hartshorne and P. Weiss (Eds.).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http://www.textlog.de/charles_s_peirce.html)

최재웅

(136-701)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학교 언어학과
E-mail: jchoe@korea.ac.kr

접수일자: 2009. 11. 08

수정일자: 2009. 12. 14

게재일자: 2009. 12. 24